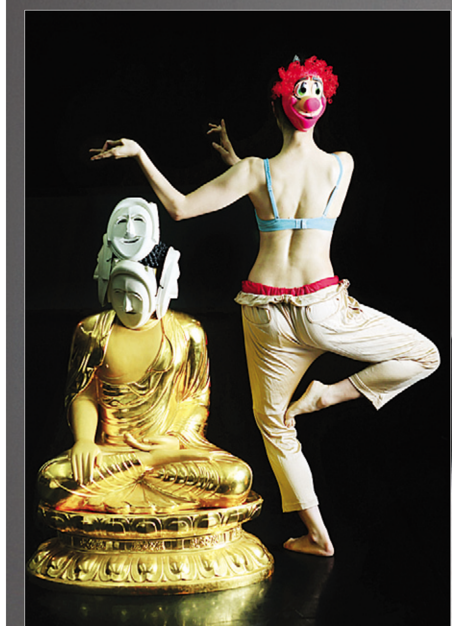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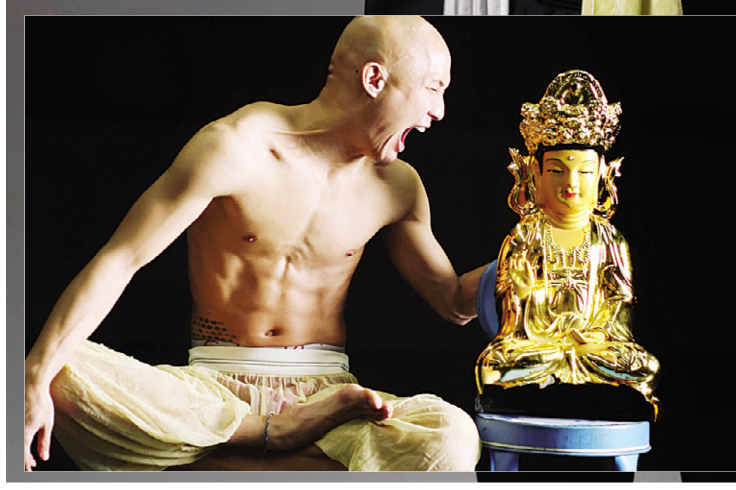
서양 불교이미지에 우리 현실 덧입혀

안애순 무용단, 25~26일 하이브리드 댄스 프로젝트 '불쌍' 공연

안애순 안무가(오른쪽)와 그가 창작한 '불쌍'의 장면들(아래).





프랑스 파리의 부다바(Buddha Bar)에서는 동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신성한 종교적 아이콘인 불상이 원형을 알 수 없는 팝아트 조각상으로 변형돼 인테리어 혹은 가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한 라운지 음악에 동양 젊은이들도 열광한다. 오늘날 이렇듯 동서양의 문화가 자유롭게 전파, 유입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고 충돌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동서양의 춤사위를 접목해 독창적인 몸짓을 창조해 온 무용가 안애순(49)이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물음표로 던지고, 그 물음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로 답하는 공연을 펼친다.

안애순무용단과 LG아트센터가 공동제작, 6월 25 · 26일 오후 8시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불쌍'은 춤을 통해 본 문화충돌에 대한 고찰이다. '불쌍'이란 제목은 불상(佛像)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면서 원형 자체가 변형되고 찌그러진 현실을 상징한 표현이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부처 이미지(문화 코드를 상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 혼성모방, 수용, 충돌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이번 공연은 △Buddha pops △Jumpers △Iconize △Cultural complexity 등 4개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인도의 카탁(Kathak), 한국의 진도북춤과 입춤, 중국 전통무예 달마18수, 몽골과 일본의 민속무용 등 동양 각국의 다양한 전통 무용이 안애순을 통해 새롭게 해석돼 이색적인 몸짓을 만들어 낸다.

최근 영상, 조명 등의 멀티미디어와 라이브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현대무용의 표현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춤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안애순은 '불쌍'에서도 무용과 타 장르간의 협업을 통해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애순의 오랜 예술적 동지인 무대미술가 김종석, 조명디자이너 이인연, 현대음악가 양용준을 비롯해 국내 최고의 DJ 소울스케이프, 시각문화의 극단을 추구하는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참여해 특별한 시청각적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는 화려한 안무와 다양한 공간 구성은 현대무용의 끝없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파리에 있는 카페 부다바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기획했다는 안애순씨는 "서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 이미지나 음악이 역수입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를 사는 우리 모습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88년 프랑스에서 열린 '바뇰레 안무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에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사용해 동양적 생사관(生死觀)을 표현한 적이 있는 그녀는 평소 '불교음악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음악이자 무한한 창작 소재의 보고(寶庫)'란 소신을 갖고 있다.

'아가씨와 건달들' '바람의 나라' '대장금' 등 뮤지컬 안무 작업에도 참여한 그녀는 '한국 뮤지컬 대상' 안무가상을 2회(1997년, 2006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장금'으로 '더 뮤지컬 어워즈' 안무상(2007년)을 수상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옥스퍼드 무용사전>과 <세계 현대 춤 사전>에 현대무용가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안무가이다. (02)2005-0114

김성우 기자

전각과 서예로 만다라 구현

김영옥 작가 아르스화랑서 '인드라망의 빛' 展

김영옥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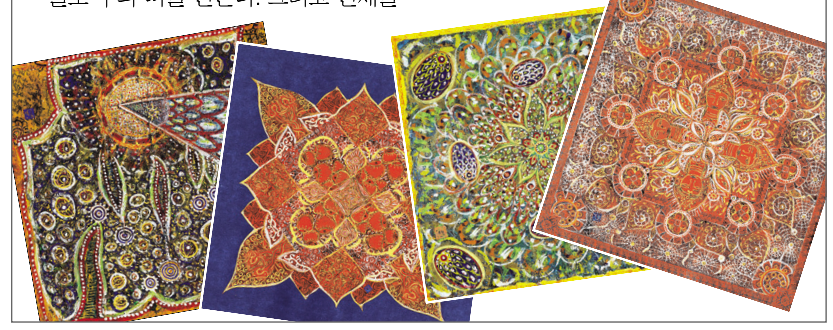
전각(篆刻)과 서예를 통해 만다라를 그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김영옥 작가의 두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김영옥 작가는 6월 20일~7월 4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아르스화랑에서 '인드라망의 빛' 전을 연다.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의 '고구려 벽화의 새로운 해석' 강연회와 이애란의 판소리 공연(고수 백민호)도 펼쳐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들은 돌에 새긴 크고 작은 전각을 종이에 도장으로 찍은 후, 붓으로 새로운 조형을 그려 완성한 그림들. 조형 기법을 살펴 보면, 먼저 돌에 추상적인 단위 무늬를 새긴 다음 같은 도장으로 각도를 달리해 다시 좀 더 큰 단위무늬를 만들거나 병렬로 무늬 띠를 만든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조형으로 만들어낸다. 이어 질긴 종이를 선택, 엷은 먹물로 염색한 후 도장은 인주를 찍어 종이에 단계적으로 조형을 이루며 찍어나간다. 그 다음 붓으로 은색이나 금색으로 도장 무늬 위에 새로운 조형을 이뤄 나간다. 기존 무늬의 연장선상에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선들을 그으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형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번 작품들에 대해 강우방 원장은 "칼과 붓, 돌과 종이가 만나는 자리에서 김영옥의 작품은 탄생한다"면서 "칼로 새기듯 쓴 붓글씨, 종이에 붓으로 쓴듯한 전각으로 완성된 만다라는 우주와 교감하는, 생명이 생성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02)422-0034

김성우 기자



21인의 거장, 백남준과 소통하다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는 1963년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열렸던 백남준(1932~2006)의 역사적인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에 대한 패러디와 오마주(경의)를 바치는 새로운 기획전 '신화의 전시 – 전자 테크놀로지' 전을 6월 12일 연다.

10월 4일까지 무료 전시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김윤호, 그레거 줏스키(독일), 류한길, 마르커스 코츠(영국), 마리 바우어마이스터(독일), 박경, 박종우, 오노레 도(벨기에) 등 21인의 거장들이 故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청년 백남준이 꿈꾸고 도전했던 예술의 영감과 소통을 시도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백남준이 예술의 틀을 뛰어넘어 테크놀로지를 사고와 정신의 매체, 생명과의 소통의 매체로 사용한 것이 '대칭성 예술'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테크놀로지-예술-인류학의 내적 연관과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031)201-8554

김성우 기자

박종우 作 '인도 라다크 판공호수'.

금강경도 찬불가도 음성공양으로

'금강경 강송' '불광& Jinny' '풍경소리28' 발매

<금강경> 독송과 찬불가 및 염불독경을 음반에 담은 '음성공양'이 잇달아 선보였다.

서울 보림선원(02-914-6187) 조실 묵산 스님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추앙받은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금강경 강송>을 한문과 한글 독송으로 들려준다. 묵산 스님은 최근 무상(無相)을 마루로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묘유(妙有)를 작용으로 하고, 견성(見性)과 보림(保任: 견성 이후의 공부)의 도리를 이야기한 <금강경 강송> 1집을 오디오 CD로 제작, 국내외 불자들에게 법보시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원(원장 불광 · 070-7561-2999)은 찬불가 및 염불독경을 담은 음반 '불광 & Jinny'를 제작 보급한다. 이 음반에는 불광 스님이 작곡하고 불광 스님과 지니가 함께 부른 찬불가 '나만의 부처님' '나 오직 한길' '귀 기울여봐' '내 안에' 등 7곡과 <천수경> 등 염불이 들어있다.

좋은벗풍경소리(총재 지현 · 02-723-9836)는 여름불교학교 시즌에 맞춰 창작 찬불동요 8곡과 율동및 합창용 반주음악을 담은 스물여덟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28집'에는 <법구경> '꽃의 장'을 노래한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와 한마음선원 찬불동요가사 응모전에서 선정된 '하늘마음'을 비롯해 '생긋 웃는 얼굴' '나눠요' '법당안에서' '염주' 등 교육적인 자비와 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살아있다.

김성우 · 이상언 기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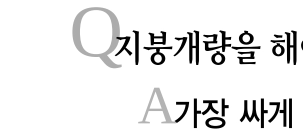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